

광주시립점자도서관, 시각 장애인 '배움의 전당' 자리매김

✎ 박정석 기자 | ☎ 승인 2025.02.17 18:33

23년 8월 개관 후 2만여 명 다녀가
점자·녹음도서 등 대체자료 확대
비장애인과 융화 기회 제공 계획
"폭넓은 서비스로 사회 통합에 기여"



광주광역시립점자도서관이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점자도

광주광역시립점자도서관이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은 광주 지역 7천4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립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23년 8월 문을 열었다.

평소 문화·예술 등의 분야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 난독증 환자, 노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비장애인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할 목적으로 건립에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지상 4층 규모의 점자도서관에는 어린이열람실, 책마중공간, 도서열람실, 대면낭독 및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실, 점자인쇄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마련돼 있다.

또한 점자도서(2천662권), 음성도서(863권), 전자도서(TTS 포함 2천911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도서와 DVD 등도 비치했다.

여기에 더해 문자를 점자로 변환하는 업무를 맡는 점역교정사와 사서, 사회복지사 등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통해 ▲시각장애인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독서 보조기기 무상 임대·교육 ▲시각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표적인 문화체험 서비스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극장에서 함께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 영화 상영'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점자도서관을 찾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점차 늘어났고, 개관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자료 대출과 프로그램 참여 등 이용 건수가 2만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자료별 대출 현황을 보면 전자도서가 6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점자도서(18%), 기타(더책, 큰글자, 촉각·7%), 일반도서·음성도서(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점자도서관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지속 생산하는 동시에 향후 저시력(약시) 노년층을 위한 음성도서 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수 광주시립점자도서관장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